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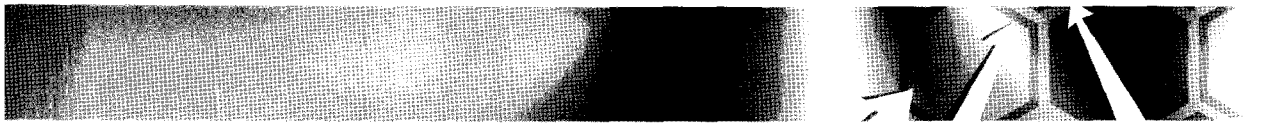
농협개혁시리즈

한민수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연구팀장

진정한 경쟁과 협동의 가치를 발휘하려면?

두 염소의 우화

지난 7월호에서 이승 우화에 나오는 두 염소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뻔하고 시시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계셨을 것이고,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진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이번 8월호 지면에서는 이 두 마리 염소 이야기를 가지고 진정한 협동의 가치를 살려내기 위한 한농연 회원들의 역할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달 월간 한농연에서 두 마리 염소 우화의 네 가지 그림을 보여드린 후, 아래처럼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 ● ●

**왜 굳이 많은 초식동물 중에서
염소일까요? 힘이 센 코끼리도 황소도
있는데 말이죠?**

● ● ●

**왜 염소들은 줄에 매어 있을까요? 좀더
자유롭게 줄 없이도 살 수 있을텐데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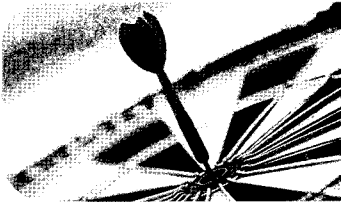
글쎄요... 힘센 초식동물 같으면 아무리 맹수들이 공격을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을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코끼리나 황소 같으면 어느 정도 자라나면 함부로 맹수들이 공격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염소는 다르죠. 아무리 커져봤자 커다란 강아지 이상으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더욱이 수컷이 가지고 있는 작은 뿔 정도로는 맹수를 공격할 수 없죠.

이는 매우 작은 농토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세한 농업경영의 현실을 비유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통계를 봐도 기껏해야 평균 4,500평 정도의 논밭을 부쳐먹는 정도입니다. 한농연 회원들 처

럼 몇십 ha씩 농사를 짓는다는 젊고 기술 좋은 농민일지라도 평균 2억원에 육박하는 빚더미에 시달리는 '껍데기만 대농' 일 뿐입니다. 그런 대규모의 농민들조차,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신대륙의 대농들은 물론이거니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농민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게임이 안됩니다.

이제는 고도의 기술과 경영능력은 물론, 자본과 시설이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죠. 하지만, 농업은 공업과 전혀 다른 산업입니다. 동식물의 생명을 다루야 하고, 자본 회전도 빨라야 몇 달, 과수 작목들 같으면 길게는 4~5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힘든 직종입니다. 공산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방식의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3D 업종이라 불릴 정도로 힘든 게 농사일인데, 뼈빠지게 농사지어봤자 손바닥에 남는 건 얼마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유통상인이나 대형유통업체, 각종 농자재 업체 등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젊은 바이어라는 놈이 한농연 회원님들의 농장에 불쑥 찾아와서는, 피땀으로 생산한 농산물값을 터무니없이 후려친다든지, 작황이나 수급에 상관없이 대형유통업체의 세일 행사에 저가 미끼상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그나마 있던 거래선마저 냉정하게 끊어버리기도 하지요.



농협개혁시리즈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무분별한 개방농정을 강요받는, 태생부터 경제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350만 우리 농민들의 냉혹한 현실을 위의 그림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염소 두 마리는 굳이 용을 쓰고 각자의 앞에 있는 풀로 나아가려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이익에만 급급해서, 중장기적으로 개개인의 농장 경영을 발전시키고, 지역농업과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너무나도 인색해 온 우리 350만 농민들의 행동 양식을 빚댄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산지 수집상이 '평당 100원 더 줄게. 우리 쪽으로 물건 내나라' 하면, 봄철 영농자금 생활자금이 너무 급해서 정부나 농협과 맺었던 계약재배 약정을 너무나 쉽게 파기하고 돌아서는 농민조합원들의 행동 방식의 문제점 같은 것들입니다.

이웃 농민, 이웃 마을, 이웃 지역의 농민이나 생산 조직과 통큰 단결과 협동을 통해, 대형유통업체 바이어들이나 산지 수집상들의 횡포에 당당히 대응해야 하는데도, 당장의 급전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

에 눈이 멀 수밖에 없는 현실... 60여년을 넘게 제자리걸음(실질적으로는 퇴보)을 해 온 우리 농업과 농협 운동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두 염소가 머리를 맞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역농업이든, 농협이든... 온통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누구 하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스스로의 문제점들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하고 고민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평당 단돈 100원이라도 더 벌해보겠다고 산지 수집상에게 발뼀기로 넘기는 농민조합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분께서는 가락시장에 5톤 트럭으로 실고 가서 최고가 낙찰을 받아 신나게 돈다발을 헤아리면서, "그래, 알량한 농협 직원 놈들이 나



처럼 제대로 팔 수나 있겠어? 농협 네까짓 것들이 나처럼만 농사짓고 팔아봐라” 이런 생각도 하셨죠.

맞습니다. 걸핏하면 초대형 금융사고나 몇천억 원 대 손실만 내고, 정치권 등과 연관된 구조적인 버리에 횡령에 부정선거만 되풀이되는... 1961년 군인 출신 농협중앙회장이 임명되면서 출발한 비뚤어진 관계 협동조합, 오욕의 역사로 점철됐던 농협중앙회와 일선 조합들의 원죄가 워낙 크다는 점, 가릴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저리의 농업자금 대출을 부르짖으면서도 “농신보 한도가 차서, 부동산 담보물이 없어서” 못 빌려주겠다고만 하고, 흑여나 대출금이 연체라도 될 양이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며 강제집행 조치를 해서 조합 직원들만 살아 남으려고 안달복달입니다. 경제사업 제대로 해야 한다고 농민조합원들이 목 터져라 외쳐대면 “조합 입장에서 경제사업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조합원들이 제대로 수수료도 내고 좋은 물건 내놔서 경제사업 하는 꼴 전혀 못봤다” 하면서 꿈무늬만 빼는 게 가관이 아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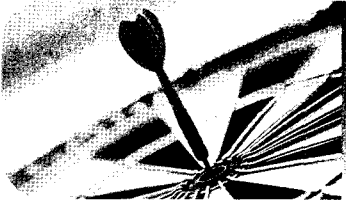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 12만 한농연 회원들은, 그런 부분들 까지도 적극 포용하면서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개혁하고 실천해서 보란 듯이 농협 개혁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200여명에 육박하는 한농연 출신 농축협 조합장과,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이사, 감사, 대의원들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12만 회원이 뿔뿔뿔이면 높고 단단한 산일지라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농협중앙회와 일선 조합 임직원들이 못해내겠다고 생떼를 쓰면, 12만 한농연 회원들이 나서야 합니다. 임직원들이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키워낼 것이며, “안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강력한 개혁 운동을 전개하여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협동조합 운동의 핵심 원칙이자 운영 원리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면, 한농연 회원 개개인이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이나 정치적 야심 같은 것들도 과감히 놓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원칙을 지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일을 해서 최종 결과를 뽑아내려면, 우리 12만 한농연 회원들 스스로가 앞장서서 “바보”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미쳐야” 합니다.

제대로 된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교육과 조합 실무에 대한 훈련을 통해, 개별 농민조합원은 물론 대의원, 이감사, 조합장, 조합 직원들까지 “진정한 협동조합 운동의 주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농협개혁시리즈

● ● ●

염소들은 왜 왼쪽 풀부터 먹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왜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회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일에는 “전략적 선택”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타협과 실천”이란 게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은 그러한 두 가지 일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왼쪽 오른쪽에 먹기 좋은 풀이 둘 다 있죠. 두 마리 염소들은 제각기 자신에게 가까이 있던 풀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양쪽의 풀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하염없이 서로 줄다리기만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결과만 낳을 것입니다.

시급히 해야 할 일, 중요성이 높은 일부터 제대로 진행시켜야 합니다. 당장 우리 농협의 역량으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부터 제대로 논의해서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자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때에는 개별 조합원들이

갖고 있던 권리와 기득권같은 것도 일부 양보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들이 왼쪽 풀부터 먹고 나서는 오른쪽으로 갔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끝난 이후에도,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일일지라도 결정을 내렸으면 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과 타협의 진정한 민주주의적 가치이며 협동조합의 정신일 것입니다. 맨 마지막 그림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 ●

나가며

7월부터 8월까지 진정한 협동과 경쟁의 가치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농촌민심이 예전같지 않다고 하죠? 아파트와 빌딩 숲에 파묻혀 사는 도시민들보다 훨씬 각박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남의 지역 농사가 자연재해로 폭삭 망해야, 우리 지역의 내가 짓는 농작물이 제값 받고 판매될 수 있다는 야박한 생각마저 생길 정도니까요.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는 마음 속 깊숙한 곳에 따뜻한 희망 한 자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든 크든, 사람들과 못생명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것이 진정한 협동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걸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 식 사업이 아니라, 한여름 피약벌 아래에서 알차게 익어가는 수박 참외같이 진실 되고 내용 있는 협동과 경쟁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농사일 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9월에 뵙겠습니다. ☺